DBpia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3. Vol. 15, No. 2, 235-258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 I (K-SSRS:중고생용 I)의 표준화: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유용성*

문 성 원†

우석대학교

본 연구는 Gresham과 Elliot(1990)의 중고등학생용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SSRS)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학생용, 부모용, 교사용으로 이루어진 중고등학생용 SSRS중에서 학생용을 중고생용I로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고등학생 402명에게 K-SSRS:중고생용I을 실시하였는데,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요인 분석 결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4요인이 추출되었다. K-SSRS:중고생용I의 4 요인은, 공감, 주장성, 자기조절, 협동성으로 명명되었다. K-SSRS:중고생용I에 대한 부가적 타당도 자료를 얻기 위해서 K-SSRS:중고생용I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 해결 질문지, 고독감 척도, 간이 정신 진단 검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K-SSRS:중고생용I에 의해 평가된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고독감이나 심리적 증상 차원들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문화에 따른 SSRS 하위 구인문화에 따른 개념적 차이와, K-SSRS:중고생용I의 하위 구인들이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의 계획 및 적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응용적 의미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사회적 기술, 신뢰도, 타당도, 요인분석, 예방

문성원은 우석대학교 언론광고심리학부에 근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됨.
† 교신저자 : 문 성 원, (565-701)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언론광고심리학부,
전화 : 063-290-1377 E-mail : drswmoon@hanmail.net

www.dbpia.co.kr

개인과 공동체를 더욱 충만하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요인을 미리 발견해서 증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긍정적 심리학(Sheldon, Frederickson, Rathunde, & Csikszentmihalyi, 2000)'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보호 요인의 강화를 통한 예방과(Catalano, Berglund, Ryan, Lonczak, & Hawkins 2002),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PYD)'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Lopez & McKnight, 2002). 사회적 기술은 보호 요인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청소년기는 예방적 개입을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적응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술을 찾기 위해서 혹은 그러한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Catalano, Berglund, Ryan, Lonczak, & Hawkins, 2002; Cavell, 1990; Greenberg, Domitrovich, & Bumbarger, 2001; Katz, McClellan, Fuller, & Walz, 1995).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한 과정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인, 평가 도구의 개발과 적용에 관해서는 개입에 대해서 주어지는 만큼의 충분한 관심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 즉, 대다수의 연구자들이나 실무자들은 개입 그 자체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기술에 대한 평가 자료의 누적을 통해서 정교한 개입 계획이 개발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개입의 효용성은 역시 평가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도구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기술에 대한 개입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사회적 기술의 평가에 대한 적극적 관심의 부재에 더해서 또 다른 문제점은, 다수의 기존 사회적 기술 척도나 사회적 유능성 척도들이,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개념적 혼돈을 빈번히 드러내고 있고(문성원, 2002), 심리 평가 도구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Demary 등, 1995), 진단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입에 대한 응용적 가능성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문성원, 2002). 즉, 평가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정교한 개입 계획을 개발하고 싶어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해줄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Gresham과 Elliot(1990)의 Social Skill Rating System(SSRS)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원을 통해서 평정 자료를 얻도록 하고 있고 개입과의 연결성이 뛰어나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사회적 기술 평가 도구중 가장 포괄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Demary 등, 2002). 긍정적 행동 혹은 친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 척도를 고루 갖춤으로서 강점을 육성하는데 강조점을 둔 유능성 모형과 결손의 확인에 비중을 둔 의학적 모형 모두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SSRS는, 특정 기술 영역을 대표하는 여러 개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중다 평정자 체계를 통해 교차 비교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 또한, SSRS의 이러한 세부적 하위 요인 구조는 SSRS와 더불어 적응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병행되어 사용될 경우, 사회적 기술의 어느 하위 요인이 적응의 어느 영역과 관련되고 있는지가 추정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SSRS가 선발, 분류, 개입 계획에 관한 의사 결정에 유용하고, 그밖의 여러 목적을 위해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평가도구라고 하여도, 사회적 기술이라고

www.dbpia.co.kr

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충분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각 연령대별로 광범위한 타당도 자료가 누적될 수 있다면, 발달적 경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우리 문화 특유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문성원(2002)은 SSRS를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타당화 작업을 한바 있는데, 그 결과 K-SSRS:대학생용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우수했고, 개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응용적 시사점을 마련해주었다. 특히, K-SSRS:대학생용의 하위 척도들과 적응 지표들간의 세부적 상관은 향후 대학내 학생생활연구소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일차적 예방의 프로그램과 이차적 예방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시해주었다.

이에 더해서 본 연구에서는 SSRS Student Form (SSRS-S) Secondary Level을 번안하여 얻어낸 K-SSRS:중고생용I의 타당도를 확립하고 이 결과가 개입과 관련하여 가지는 응용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K-SSRS:중고생용I의 타당화는 대학생에 이은 연령대별 타당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소년기의 사회적 기술은 예방이나 발달적 관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생각되었다. 최근들어, 정책적 차원에서 중학교 시스템에 기반을 둔 인성교육안이 고려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교육인적자원부, 2003), 청소년용 사회적 기술에 대한 평가 도구의 마련은 매우 큰 효용을 지니게 될 것이다.

K-SSRS:중고생용I의 타당화를 위해 두 단계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 관련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온 SSRS를 한국의 중고생 집단에 실시하여 그 요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K-SSRS:중고생용I이 구인 타당도를 가지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K-SSRS:중고생용I의 요인들이 적응과 관련된 다른 심리적 구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서 K-SSRS:중고생용I의 타당도에 관한 자료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기술이 사회적 적응과 갖는 구체적 관련성 및 개입 관련 응용성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Gresham과 Elliot(Gresham & Elliot, 1990)은 SSRS의 공존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SSRS-S Secondary Level과 Achenbach와 Edelbrock (1987)의 Youth Self-Report(YSR), Piers(1984)의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PHCSCS)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Gresham과 Elliot에 따르면, SSRS-S Secondary Level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들은 YSR의 문제 행동 척도와 거의 대부분 부적 상관을 맺고 있었으며, 특히 외현화 문제와의 상관 정도가 내현화 문제와의 상관 보다 더 높았다. SSRS-S Secondary Level은 PHCSCS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는데, 하위 척도중에서는 PHCSCS의 행동 척도나 지적/학교 지위와의 상관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K-SSRS:중고생용I의 공존 타당도 입증을 위해서 K-SSRS:중고생용I과 사회적 문제 해결 양식, 그리고 사회적 적응 지표들간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사회적 문제 해결 양식은 SSRS의 구인들과 더불어 사회적 기술의 중요한 한 차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K-SSRS:중고생용I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좋은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사회적 적응 지표로는 고독감과 심리적 증상 수준을 택하였다.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Cavell(1990)의 3요소 모형에 따르면,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기술, 사회적 수행, 사회적 적응이라는 세 가지 위계적

www.dbpia.co.kr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적 적응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행이, 그리고 사회적 수행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술이 필수 조건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즉, 우수한 사회적 기술은 유능한 적응을 성취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Cavell(1990)은 사회적 적응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정서적 지위, 사회적 지위, 관계적 지위등의 심리적 지위에 대한 측정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기술과 이들 지표들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일은, K-SSRS:중고생용I로 포괄되는 사회적 기술 전체나 K-SSRS:중고생용I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하위 요인들이 개별적 적응 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차별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용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었다. K-SSRS:중고생용I의 특정 하위 요인이 특정 적응 지표와 유의한 상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개입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방 법

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402명(남 189명, 여 200명)이 참여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16.04세(SD=2.05)였다.

도구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I (K-SSRS:중고생용I)

Social Skill Rating System-Student Form, Secondary Level(SSRS-S Secondary Level)을 사용하였다. SSRS-S Secondary Level은 협동성, 주장성, 공감, 자기 조절의 4 요인으로 형성되어 있다. 협동성 요인에서는, 남을 돕고, 자료를 교환 또는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주장성 요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구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또래로부터의 압력이나 모욕과 같은 행동에 반응하는 등의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공감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관점에 대해서 관심과 존경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자기 조절에서는 짓궂은 놀림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과 같은 갈등 상황에 나타나는 행동과, 교대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것과 같은 비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측정하게 된다. 실시시간은 약 20분이며, 원래는 표준화된 규준 준거 척도로 개발되어서, 백분위 점수가 산출되고, 행동 수준(평균 이상, 보통, 평균 이하)과 총 사회적 기술에 대한 측정 오차가 제시된다.

총 3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SSRS-S Secondary Level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빈도 평정과 중요도 평정의 두 가지 평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빈도 평정에서는, 문항에서 주어진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결코 하지 않는(0)', '간혹 하는(1)', '매우 자주 하는(2)' 중 하나를 택하게 되며, 중요도 평정에서는 그 행동이 자신의 적응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0)', '중요한(1)', '결정적인(2)'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SSRS 타당화 연구나 K-SSRS: 대학생용의 타당화 연구(문성원, 2002)에서와 마찬가지로 빈도 평정만을 요인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요도 평정은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획득의 문제인지 혹은 수행의 문제인지를 고려하여 분화된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SSRS의 타당화 과정에서는 중요도 평정에 대한 별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었다.

www.dbpia.co.kr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K-SSRS:중고생용I)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언어 국가에서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를 마친 학생과 연구자가 함께 SSRS-S Secondary Level의 원 문항을 한글로 번역하였고, 같은 조건을 가진 다른 학생이 이 문항을 다시 영어로 번역한 뒤, 국제교육부 소속의 외국인 교수 3인이 각 문항의 일치도를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균 3점 미만의 평정을 받는 문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K-SSRS:중고생용I의 문항을 얻어내었다.

사회적 문제 해결 질문지(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SPSI)

사회적 문제 해결 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총 70 문항으로 된 질문지로 D'Zurilla와 Nezu(1990)가 제작하였고 국내에서 김영미와 김중술(1992)이 번안하였다. 두 개의 주요 척도와 7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두 개의 주요 척도는 문제 지향 척도(Prblem Orintation Scale: POS)와 문제 해결 기술 척도(Problem Solving Skill Scale: PSSS)이며, POS에 포함되는 하위 척도들은 인지 척도(Cognition Subscale: CS), 정서척도(Emotion Subscale: ES)그리고 행동 척도(Behavior Subscale: BS)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려는 전반적인 동기 요소인 문제 지향(problem orientation)을 구성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 세트들이다. PSSS에 포함되는 하위 척도들은 문제 규정과 구성화 척도(Problem Definition & Formulation Subscale: PDFS), 문제 해결 대안 양산 척도(Generation of Alternative Solution Subscale: GASS), 의사결정척도(Decision Making Subscale: DMS), 그리고 해결법 수행과 확인 척도(Solution Implementation & Verification Subscale: SIVS)들로, 특정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는데 요구되는 네 가지 기술들이다. 문항들의 절반은 긍정적인 내용이며 절반은 부정적인 내용인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완전히 그렇다(4점)에 해당하는 5점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인 경우에는 채점시에 역으로 계산하였다. 70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 문제 해결 총점이 되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많은 것이다. 김영미와 김중술이 우울증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결과 α 계수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α 계수가 .93이었다.

UCLA 고독감 척도(Loneliness Scale-Revised: LS)

이 척도는(Russell, Peplau, & Cutrona, 1980) 현재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부적절감, 그리고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인관계와 실제의 대인관계 사이의 차이에서 느끼게 되는 고독감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이다. 구체적으로는 버림받았다는 느낌, 우울감, 비관적이고 고립되어 자기 폐쇄적인 정도, 그리고 사교적이지 못하며 대인관계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정도 등을 묻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각 문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지 1. '전혀 없다'에서 4. '자주 있다'까지 4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는 것이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80점까지이고, 높은 점수는 스스로 지각하는 고독감이 높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민(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당시의 α 계수는 남자 청소년(283명)에 대해 .82, 여자 청소년(244명)에 대해서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 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는 심리치료 및 향정신 약물 사용의 효

www.dbpia.co.kr

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심리진단 검사로서 쓰일 수 있도록 Derogatis 등(1977)에 의해 개발된 '자기 보고식 다차원 증상 목록' 검사이다. 총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화(Somatization: SOM), 강박증(Obsessive-Compulsive: O-C), 대인민감성(Interpersonal Sensitivity: I-S), 우울(Depression: DEP), 불안(Anxiety: ANX), 적대감(Hostility: HOS), 공포불안(Phobic Anxiety: PHOB), 편집증(Paranoid Ideation: PAR), 정신증(Psychoticism: PSY) 등의 9개 기본 증상차원과, 전체 심도 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 표출 증상 합계(Positive Symptom Total, PST), 표출 증상 심도 지수(Positive Symptom Distress Index, PSDI)의 3개 전체지수로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적인 증상을 대표하고 있으며, 응답자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 '약간 있다(1점)', '웬만큼 있다(2점)', '꽤 심하다(3점)', '아주 심하다(4점)'의 5점 평정을 하게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에 의해 표준화가 되었다.

절차 및 분석 방법

402명의 대상자들에게 K-SSRS:중고생용I, SPSI, LS, SCL-90-R을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로부터 먼저 K-SSRS:중고생용I에 대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을 구하여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문항과 상관이 낮게 나온 문항이 분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문항들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이용하여 공통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료를 축약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므로, 전체 변량에서 에러와 고유변량을 제외한 공통변량만을 토대로 해석이 이루어지는 공통요인 분석이 주성분 분석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기초 구조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분해법을, 변수의 공통분 추정 방법으로는 재분해를 통한 반복 추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사각회전 방법중 Direct Oblimin($\delta=0$)을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기초 구조 회전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각 회전 방법을 이용하였다. 표본에서 요인들간의 상관이 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순묵, 1994). K-SSRS:중고생용I의 최종 문항 확정을 위해서는 문항분석과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 결과를 모두 고려하였다.

K-SSRS:중고생용I과 다른 척도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K-SSRS:중고생용I의 최종 문항, SPSI, LS, SCL-90-R을 가지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술의 각 요인들과 적응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 설명변인들의 효과를 상호통제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 과정에는 SPSS 11.0 windows를 이용하였다.

결 과

신뢰도 및 요인 분석

402명의 중고등학생에게 K-SSRS:중고생용I를 실시하였으나, 대다수의 문항에 대해 거의 동일한 응답을 하는등의 무성의한 응답을 한 경우가 일부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총 393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에 앞서서 먼저 SSRS-S Secondary Level을 구성하고 있는 39개의 문항들이 K-SSRS:중고생용I에도 반드시 필요한

www.dbpia.co.kr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한 문항과 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 총점과의 상관을 반영하는 r_{it}와, 전체 척도에서 한 문항이 제거되었을 경우의 α 계수를 살펴보았다. r_{it}를 검토한 결과, 지나치게 높은 상관을 보여서 다중 공선성이 우려되는 문항은 없었으나(r_{it}=.12~.50, p<.01), 7번 문항(r_{it}=.12, p<.01.)을 비롯한 일부 문항이 총점과 낮은 정도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7번 문항의 경우, 7번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α계수(α=.8540)가 척도 전체에 대한 α계수(α=.8522)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낮은 상관을 보이는 다른 문항들의 경우도 7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해당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α계수가 척도 전체의 α계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총점과 낮은 정도의 상관을 보인 문항들도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SSRS 39문항 전체의 상관계수 행렬(부록 I)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K-SSRS:중고생용I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r_{it})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자료의 구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인가를 알아보기위해서 Bartlett의 구형 검사와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성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Bartlett의 구형검사에서는 X_{741}=2618.002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성 검사 지수는 .807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George & Mallery, 2001).

요인의 수효에 대한 추정치를 얻기 위하여 요인의 수효를 제한하지 않고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니 Kaiser(1960) 방식에 의해 총 1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39개의 문항에서 추출할 수 있는 요인의 수효로서 11개는 경제적이지 못하므로 스크리 검사의 결과를 다시 고려하였다. 검

표 1. K-SSRS:중고생용I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

문항	*M*	*SD*	r_{it}
1	1.34	.51	.42
2	1.38	.58	.42
3	1.34	.65	.24
4	.74	.60	.28
5	1.57	.56	.39
6	1.24	.56	.39
7	.83	.65	.12
8	1.10	.67	.37
9	1.60	.54	.29
10	1.03	.63	.27
11	1.24	.66	.19
12	1.56	.55	.32
13	1.25	.63	.36
14	1.02	.66	.24
15	.87	.57	.25
16	.98	.73	.45
17	.98	.58	.40
18	1.07	.66	.38
19	.92	.65	.14
20	.50	.66	.25
21	1.57	.57	.40
22	1.04	.66	.29
23	1.07	.69	.38
24	1.36	.56	.50
25	1.66	.56	.42
26	.99	.73	.20
27	1.12	.59	.40
28	.85	.73	.28
29	1.44	.55	.48
30	1.35	.66	.46
31	.92	.61	.31
32	1.07	.69	.18
33	.96	.69	.28
34	.89	.61	.25
35	1.34	.57	.40
36	1.25	.63	.39
37	1.18	.55	.38
38	1.26	.60	.42
39	1.23	.67	.49

주. Valid N=278, Alpha=.8522, Average item mean=1.14

www.dbpia.co.kr

사 결과, 4번째 요인부터는 고유치의 증가 정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Cattel(1966)의 기준에 의하면 요인의 수효를 3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4개의 요인을 가정하고 있는 SSRS-S: Secondary Level이나 K-SSRS:대학생용(문성원, 2002)과의 비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요인의 수를 3개와 4개로 지정한 요인분석을 제각각 실시한후 양자의 세부적 분석 결과 모두를 비교 검토하여 요인의 갯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주축 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Direct Oblimin(δ=0)방식으로 사각 회전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의 공통 요인 분석을 실시하자, 요인을 4개로 지정하였을 경우 분리되어 추출되던 두 개의 요인이, 요인을 3개로 지정하게 되면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됨을 볼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SRS-S:Secondary Level의 협동성 요인과 자기 조절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각각 구성되었던 두 개의 요인이, 요인을 3개로 지정할 경우 하나의 요인으로 함께 묶여서 나타났다. 자기 조절 요인과 협동성 요인은 개념적인 측면이나 개입에 대한 응용 가능성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어 사용되기 보다는 별개의 요인으로 사용되는 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결국 본 연구에서는 K-SSRS:중고생용I의 요인을 4개로 지정한 경우의 분석 결과를 택하였다.

각 요인별 소속 문항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체 문항중 그 어느 요인에 대해서도 .30이상의 계수를 가지지 못하는 문항은 탈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7번 문항과 15번 문항이 제거되었다. 다음으로, 특정 문항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대해서 .30 이상의 계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계수를 가지는 요인에 귀속시켰다. SSRS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수의 수치가 .30 이상이 되는 것을 문항선택의 기준으로 사용하기는 했으나, 본 연구의 경우 SSRS의 경우와는 달리 사각회전 방법만을 사용했으므로 문항 선택을 위해 구조계수와 형태 계수를 모두 고려했다.

변수의 의미를 숙지한 상태에서 우선 구조계수 행렬을 보고 요인을 해석하고, 해석된 요인의 의미에 근거하여 형태계수 행렬에서 변수들을 재해석한 다음, 다시 구조계수행렬로 가서 요인의 의미를 수정하라고 한 Brogdoen(1969: 이순묵, 1995에서 재인용)의 견해에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구조계수들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형태계수들을 검토했다. 전체 척도에서 구조 계수가 .30이 넘지 않은 문항들을 제거해낸 뒤 다시 형태 계수가 .30이 넘지 않은 문항들도 제거해냈다. 구조 계수만 고려했을 때는 일부 문항의 경우 해당 요인에 속하는 다른 문항들에 비해 개념적으로 다소 동떨어진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으나, 형태 계수까지 고려하자 개념적 거리가 있어보이는 문항들이 모두 탈락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다시 구조계수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자, 남아있는 문항들의 대부분이 .35이상의 구조계수를 가지고 있는 문항들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35 이상의 구조계수를 가지는 문항만이 남도록 전체 척도를 다시 최종 정리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K-SSRS:중고생용I의 총 문항수는 30개였고, 4개 요인의 고유치의 총합은 13.36 이었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34.36%를 설명하였다. 4요인으로 구성된 30 문항의 점수와 39문항으로 된 원 척도 점수의 상관은 r=.97(p<.001)로 높게 나타났다. 사각으로 회전된 K-SSRS:중고생용I의 요인에 대한 구조 계수와 형태 계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K-SSRS:중고생용I의 각 요인별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들의 내용적 공통점을 살펴보고, 이를 SSRS-S Secondary Level의 요인구조와 비교하

www.dbpia.co.kr

표 2. 사각으로 회전된 K-SSRS:중고생용I의 요인 구조(패턴) 계수

문항	1	2	3	4
24	**.612(.593)**	-.144(.029)	.243(.130)	.237(.090)
39	**.587(.540)**	-.326(-.177)	.113(.025)	.176(-.073)
2	**.573(.578)**	-.129(.033)	.155(.055)	.176(-.020)
29	**.527(.464)**	-.262(-.124)	.235(.135)	.214(.011)
5	**.517(.502)**	-.196(-.058)	.055(-.053)	.169(.028)
8	**.504(.483)**	-.246(-.117)	-.025(-.143)	.161(.053)
30	**.501(.432)**	-.309(-.182)	.289(.224)	.152(-.079)
37	**.466(.443)**	-.113(.019)	.189(.094)	.203(.033)
21	**.464(.404)**	-.222(-.103)	.047(-.093)	.259(.159)
12	**.440(.454)**	-.098(.026)	.148(.092)	.095(-.077)
38	**.400(.298)**	-.300(-.204)	.160(.048)	.247(.120)
25	**.385(.255)**	.267(-.174)	.143(-.016)	.362(.274)
3	**.363(.359)**	-.061(.040)	-.056(-.179)	.201(.158)
4	.212(.067)	**-.701(-.696)**	.005(.059)	-.075(-.157)
20	.206(.093)	**-.617(-.606)**	.027(.046)	-.108(-.205)
23	.377(.271)	**-.511(-.440)**	.090(.038)	.061(-.074)
28	.340(.267)	**-.474(-.413)**	-.071(-.128)	.019(-.052)
33	.140(-.020)	**-.423(-.416)**	.086(.014)	.172(.137)
1	.369(.244)	**-.408(-.330)**	.188(.105)	.187(.045)
26	.160(.054)	**-.352(-.335)**	-.050(-.124)	.118(.117)
22	.111(.030)	.015(.055)	**.597(.585)**	.249(.041)
6	.334(.282)	.030(.139)	**.553(.516)**	.240(-.023)
34	.048(-.068)	-.014(.056)	**.551(.547)**	.222(.046)
27	.263(.164)	-.118(-.044)	**.500(.468)**	.219(-.057)
10	.149(.062)	-.093(-.052)	**.368(.345)**	.170(.022)
13	.189(-.033)	-.045(.066)	.255(.024)	**.712(.722)**
17	.171(-.082)	-.131(-.090)	.301(.057)	**.703(.700)**
35	.324(.206)	.059(.163)	.349(.167)	**.535(.425)**
36	.281(.152)	-.087(-.091)	.288(.142)	**.420(.321)**
9	.321(.274)	.080(.182)	.119(-.044)	**.393(.339)**
고유치	4.544	2.942	2.790	3.124

였다(표 3). 먼저, K-SSRS:중고생용I의 요인 1에 속한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전체 13개의 문항중 9개의 문항은 SSRS의 공감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었고, 3개는 주장성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었으며, 나머지 한 문항은 협동성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었다. 요인1은 전체적으로 SSRS-S Secondary Level의 공감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SSRS-S Secondary Level의 공감

www.dbpia.co.kr

표 3. K-SSRS:중고생용의 요인별 문항 내용

K-SSRS 요인	문 항 내 용	SSRS 요인*
요인 1	24.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 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말로 표현을 한다.	E
	39. 문제거리나 말다툼이 발생할 경우 그 일에 관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	E
	2.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훌륭해", "멋있어"등 칭찬을 해준다.	E
	29. 친구가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편이 되어준다.	E
	5. 친구가 화가 나 있거나, 혼란 사태에 있거나 혹은 슬퍼하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E
	8. 나에게 골칫거리가 있을 경우 그것에 관해 친구에게 표현을 하고 도움을 구한다.	E
	30. 사람들과 어울려서 운동이나 게임, 써클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한다.	A
	37. 부탁을 들어달라고 친구에게 말한다.	C
	21. 친구들이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잘 들어준다.	E
	12.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스러운 마음이 든다.	E
	38.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A
	25. 다른 사람과 마주쳤을 때는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인사를 한다.	E
	3.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신체적 공격을 가하거나 지나치게 괴롭히려고 할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한다.	A
요인 2	4. 이성과의 만남에 자신이 있다.	A
	20.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A
	23. 이성에게 칭찬을 할 줄 안다.	A
	28. 내가 어떤 친구를 좋아하고 있으면 그 사실을 말이나 감정 표현을 통해서 그 친구가 알게끔 한다.	E
	33. 이성이 나를 주의깊게 보아도 당황하지 않는다.	A
	1. 친구를 쉽게 사귄다.	A
	26. 이성과 대화를 시작할 때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는다.	A
요인 3	22. 부모님과의 논쟁은 소란피우지 않고 조용히 마친다.	S
	6. 어른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는다.	C
	34. 부모님의 비난을 화내지 않고 받아들인다.	S
	27. 윗 어른이 나를 꾸중하실 때 화내지 않고 받아들인다.	S
	10. 나의 의견이 어른들의 생각과 다른 경우 싸우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고 이를 표현한다.	S
요인 4	13. 숙제를 제시간에 한다.	C
	17. 수업 시간에 해야하는 과제나 기타 활동을 정해진 시간에 마친다.	C
	35.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다.	C
	36. 교실에서 벌이는 토론에서는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무례하지 않은, 차분하고 교양있는 말투를 사용한다.	C
	9.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게 될 때는 미리 물어보고 사용한다.	C

주. 원 척도에 속한 4 개 요인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A: assertion C: cooperation E: empathy S: self-control

www.dbpia.co.kr

요인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다시 SSRS-S Secondary Level의 요인구조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요인1의 문항들은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관점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동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었다. 다만, 이들 문항들은 SSRS에서 공감 요인에 속했던 문항들과는 달리 외현적 행동 그 자체 보다는 행동을 유발시킨 근본 감정이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즉, 표면적으로는 행동의 개시나 협동적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그 근원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주장보다는 공감에 더 가깝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인 1은 공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 포함된 7개의 문항중 6개의 문항은 SSRS의 주장성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고, 나머지 1 문항은 SSRS의 공감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다. 이들 문항들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호감을 그 대상자에게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다루고 있다. 주장성의 정의가 SSRS에서와 비교했을 때 K-SSRS:중고생용I에서는 다소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 2는 주장성이라고 명명했다.

요인 3에 포함된 5개의 문항중 4개는 SSRS의 자기조절 요인에 속하는 문항이었고, 1개는 SSRS의 협동성 요인에 속한 문항이었다. 대부분의 문항들이 부모님이나 어른 혹은 다른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차분히 잘 조절하고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인 3은 자기조절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에 속하는 5개의 문항은 모두 SSRS-S Secondary Level의 협동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었다. 그러나, SSRS의 협동성 요인이 남을 돕고, 자료를 교환 또는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는 등의 광범위한 협동 행동을 포괄하고 있던 것에 비해서 K-SSRS:중고생용I의 요인 4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모두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내는가와 관련된 경향이 있었다. 요인 4는 협동성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4에는 또한 393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실시하여 얻은, 30문항으로 된 K-SSRS:중고생용I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내적 합치도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4이었고,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65~.81의 범위에 있었다. Gresham과 Elliot(1990)이 .67~.83 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K-SSRS:중고생용I은 유사

표 4. K-SSRS:중고생용I 전체 척도와 하위 척도들간의 상호 상관계수 및 신뢰도

척도	요인				전체척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α
	1	2	3	4					
공감	1.00	.46**	.28**	.41**	.88**	13	1.36	.33	.81
주장성		1.00	.06	.09	.64**	7	.93	.39	.70
자기조절			1.00	.40**	.55**	5	1.07	.39	.65
협동성				1.00	.61**	5	1.28	.39	.68
전체척도					1.00	30	1.20	.26	.84

주. *$p<.05$ **$p<.01$

www.dbpia.co.kr

한 정도의 내적 합치도를 가지고 있었다.

K-SSRS:중고생용I과 다른 척도와의 상관

표 5에는 K-SSRS:중고생용I의 전체 척도및 하위 척도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 척도(SPSI), 고독감 척도(LS), 간이 정신 진단 검사(SCL-90-R)와 갖는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K-SSRS:중고생용I의 전체 척도는 SPSI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r=.37, p<.01)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SSRS:중고생용I의 하위 척도들도 전체 척도와 마찬가지로 SPSI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17~.30, p<.01).

다음으로, K-SSRS:중고생용I은 LS에 대해서 강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으며(r=-.49, p<.01), K-SSRS: 중고생용I의 하위 척도들도 LS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r=-.16~.49, p<.01). 특히, K-SSRS:중고생용I의 하위 척도들 중에서 공감 척도와 LS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49, p<.01).

마지막으로, K-SSRS:중고생용I과 SCL-90-R의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K-SSRS:중고생용I의 전체 척도 점수는 SCL-90-R의 각 척도 점수들 모두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K-SSRS:중고생용I의 하위 척도들과 SCL-90-R 각 점수들과의 상관에 대해서는, 공감 척도의 경우 증상차원중 O-C, I-S, DEP, ANX, PHOB, PAR, PSY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 지수중에서는 GSI와 PSDI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주장성 척도는, 증상 차원중 O-C, I-S, DEP, ANX, PHOB, PAR에 대해서, 전체 지수중 GSI와 PSDI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자기조절 척도는, 증상 차원중 SOM, O-C, I-S, DEP, HOS, PHOB, PSY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맺고 있었고, 전체 지수 모두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협동성 척도는 SCL-90-R의 모든 증상 차원과 전체 지수 모두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K-SSRS: 중고생용I의 하위 척도들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 하위 척도가 중요한 측정치들과 맺는 관계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다른 하위 척도들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Watson & Biderman, 1993: 정남운, 2001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K-SSRS:중고생용I의 네 하위 척도 점수 모두를 독립 변인으로 하고, SPSI, LS, SCL-90-R 점수를 각각 종속 변인으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II ~ 부록

표 5. K-SSRS:중고생용I 전체 척도및 하위 척도들과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

척도	SPSI	LS	SCL-90-R											
			SOM	O-C	I-S	DEP	ANX	HOS	PHOB	PAR	PSY	GSI	PST	PSDI
공감	.28**	-.49**	-.06	-.11*	-.16**	-.12*	-.12*	-.12*	-.19**	-.19**	-.13*	-.15**	-.11	-.13**
주장성	.17**	-.36**	-.03	-.11*	-.20**	-.11*	-.11*	.05	-.16**	-.13*	-.07	-.11*	-.08	-.08**
자기조절	.27**	-.16**	-.12*	-.12*	-.07*	-.13*	-.10	-.14**	-.10*	-.10	-.14**	-.14*	-.11*	-.15**
협동성	.30**	-.20**	-.21**	-.19**	-.15**	-.22**	-.17**	-.31**	-.16**	-.17**	-.20**	-.23**	-.21**	-.19**
전체척도	.37**	-.49**	-.15*	-.19**	-.24**	-.22**	-.21**	-.21*	-.27**	-.25**	-.21**	-.25**	-.20**	-.21**

주. *p<.05 **p<.01

www.dbpia.co.kr

XV). 회귀 분석을 통해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자, 공감 척도의 경우 LS, HOS, PHOB, PAR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장성 척도는 LS, I-S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그리고 HOS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조절 척도는 SPSI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고, SOM, O-C, I-S, DEP, ANX, HOS, PAR, PSY, GSI, PST, PSDI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협동성 척도는 SPSI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논 의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Gresham과 Elliot (1990)이 만든 SSRS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에게 실시하여 그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총 402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K-SSRS:중고생용I을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하여 4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SSRS-S Secondary Level과 유사한 요인 구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K-SSRS:중고생용I에서 추출된 요인들 4개는 SSRS-S Secondary Level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감, 주장성, 자기 조절, 협동성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요인분석의 결과 추출된 4 요인 30문항의 점수와 39문항으로 된 원척도 점수의 상관은 r=.97(p<.001)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문항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4이었고,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65～.81의 범위에 있었다.

그러나, K-SSRS:중고생용I의 요인구조는 심층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SSRS-S Secondary Level과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번째로, K-SSRS:중고생용I의 요인중 공감과 주장성에 대한 구분이 SSRS-S Secondary Level에서와 다소 다른 경향이 있었다. 즉, SSRS-S Secondary Level에서는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K-SSRS:중고생용I에서는 그 행동을 유발시킨 근본 감정이 두 개념을 나누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K-SSRS:중고생용I의 경우,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이나 호감에 출발한 행동은 주장성 요인에 귀속되었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한 행동은 공감 요인에 귀속이 되었다. 따라서, 외현적으로는 주도적이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고 있는 문항의 경우, SSRS-S Secondary Level에서는 주장성 요인에 포함이 되었지만, K-SSRS:중고생용I에서는 공감 요인에 포함이 되었다.

특히, 타인에 대한 배려는 K-SSRS:중고생용I에서 눈에 띄는 개념이었다. 주장성 요인뿐만 아니라 척도 전체에 걸쳐서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한 행동들은 SSRS-S Secondary Level에서는 다른 요인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K-SSRS:중고생용I에서는 대부분 공감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K-SSRS:중고생용I에서는 공감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의 수효가 SSRS-S Secondary Level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었고, 그 결과 척도 전체중 공감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수는 다른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수에 비해 가장 많았다. 공감 요인과 관련된 이러한 경향은 K-SSRS:중고생용I뿐만 아니라 K-SSRS:대학생용(문성원, 2002)에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점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주장성 요인의 경우 SSRS-S Secondary Level에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구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또래로부터의 압력이나 모욕과 같은 행동에 반응하는 등의, 자기가 먼저 주도적

www.dbpia.co.kr

으로 하는 행동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으나, K-SSRS:중고생용I에서는 호감의 표현과 관련된 문항들을 중심으로만 구성이 됨으로서 개념이 축소되었다. 이는 K-SSRS:대학생용(문성원, 2002)의 타당화에서도 이미 관찰된바 있는 사실이다. SSRS-S에서 처음에는 주장성 요인에 대해 주장성이라는 명칭대신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란 명칭을 사용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주장성으로 개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문항들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K-SSRS의 타당화에서 상당 부분 다시 탈락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호감의 표현과 관련된 주장성이 다른 부분에 대한 주장성과 개념적 거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교 폭력이나 왕따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추후 주장성의 여러 차원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그에 따른 문항 혹은 하위 척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협동성 요인의 경우 협동성의 여러 범주중 학교 생활 혹은 학업 성취와 관련된 문항들로만 척도가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또한 역시 K-SSRS:대학생용(문성원, 2002)에서도 발견된 경향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서의 협동성이란 학교라는 시스템에 대한 협동 그리고 학업 성취와 관련된 협동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K-SSRS:중고생용I이 SSRS-S Secondary Level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차이는 K-SSRS:대학생용이 SSRS-S Secondary Level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차이와 상당히 유사했다. 이는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 단계에 의존하지 않는 매우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과, 문화 특정적 개념임을 알려주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들이 무비판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되는 일이 빈번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응용적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K-SSRS:중고생용I과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고독감, 그리고 정신건강 상태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K-SSRS:중고생용I에 대한 부가적 타당도 자료를 얻는 것이었다. 상관 분석 결과, K-SSRS:중고생용I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중고등학생일수록 사회적 문제 해결 질문지에서는 높은 점수를, 고독감 척도와 간이정신진단 검사에서는 낮은 점수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리적 변인들간의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요인들이 주는 영향을 배제하고 K-SSRS:중고생용I의 각 요인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고독감, 심리적 증상 차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분석하자, 주목할만한 결과가 나왔다. 먼저, 공감 요인이나 주장성 요인은 고독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협동성 요인과 자기 조절 요인은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SSRS:대학생용(문성원, 2002)의 타당화에서도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모두 배제시켰을 때, 고독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요인은 공감 요인과 주장성 요인 두 가지 였다. 고독감이란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높은 매우 정서적인 변인이고,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이란 사회적 기술중 인지적 측면을 대표하는 기술임을 고려할 때, K-SSRS:중고생용I은 4개의 하위 요인을 통해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모두 고르게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K-SSRS:중고생용I의 단일한 사용만으로도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K-SSRS:중고생용I의 하위 요인들과 SCL-90-R의 각 차원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흥미로

www.dbpia.co.kr

운 측면이 관찰되었다. 다른 요인들이 주는 영향을 배제시키자, 공감, 주장성, 협동성 요인의 경우 단순 상관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던 여러 심리적 증상 차원들과의 관련성이 상당 부분 그 의미가 사라져서, 공감 요인은 적대감, 불안공포, 편집증에 대해서만, 그리고 주장성 요인은 대인민감성과 적대감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협동성 요인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심리적 증상 차원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 비하여, 자기 조절 요인의 경우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등 여러 심리적 증상 차원들과 전체 심도 지수, 표출 증상 합계, 표출 증상 심도 지수 등 전체 지수에 걸쳐서 고르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K-SSRS:대학생용(문성원, 2002)의 경우도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시켰을 때, 우울이나 대학 생활 적응 정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던 요인이 자기조절뿐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매우 일관적인 결과이다. 즉,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의 경우 전반적인 정신병리의 예방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술은 자기 조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서 주장성 요인과 적대감의 관계 또한 주목할만 했다. 공감이나 자기 조절 요인의 경우 다른 변인들의 영향이 제거되었을 때 적대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던 것과 달리, 주장성 요인은 적대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즉, 타인에 대한 호감 표현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정도의 분노, 공격성, 자극과민성, 격분, 울분등의 사고나 감정 혹은 행동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이나 자기 조절 능력이 수반되지 않은 주장성은 오히려 부적응적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K-SSRS:중고생용I의 요인들과 관련된 이와 같은 결과들은 개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함의를 남긴다. 사회적 기술의 어떤 요소를 훈련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가령, 공감과 주장성 관련 프로그램은 고독감에 작용하여 그 결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보호 요인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고,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을 감소 또는 예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술 요소와 사회적 적응 지표간의 관련은 단순히 일방향적인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차적 예방의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이차적 예방의 의미에서 양자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구체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정신병리적 증상들을 다양하게 보고하지는 않지만 고독감 내지는 사회적 지지감의 결핍을 주로 호소하는 중고등학생에게 공감과 주장성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정신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원의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중고등학생에게는 공감이나 주장성 중심의 의사소통 훈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조절 훈련이 포함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K-SSRS:중고생용I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르게 갖춘 우수한 평가 도구임이 입증되었으며 개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보다 더 포괄적이고 적절한 사회기술 평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항들이 개발되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용성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상 집단 뿐만 아니라 임상군을 비롯한 다양한 범주를 대상으

www.dbpia.co.kr

로 한 타당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K-SSRS가 심리학적 개입과의 관련성이 높은 도구임을 고려한다면, K-SSRS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는 심리학적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보다 더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2003). **초중등교육**. http://www.moe.go.kr/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중앙적성출판사.

김영미, 김중술 (1992). 우울증 환자들의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정신의학**, 17, 130-138.

김은정, 이정윤, 윤소연, 오경자, 조신권 (1993). 대학생들의 학업적·심리적 적응: 1년간 추적 연구 I. **연세상담연구**. 9, 87-127.

김정민 (1992). **청소년기 기질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문성원 (2002). 한국판 사회적 기술 척도의 타당도 및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655-679.

이순묵 (1994). 요인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7(1), 1-27.

이순묵 (1995). **요인분석 I**. 서울: 학지사.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젱크 성격 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홍강의, 김봉석, 신민섭 (1998). 한국판 Offer 자아상 척도 표준화. **대한신경정신의학**. 37, 118-113.

Achenbach, T., & Edelbrock, C. (1987).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profile.* Burlington. VT: Uni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Catalano, R. F., Berglund, M. L., Ryan, J. A. M., Lonczak, H. S., & Hawkins, J. D. (2002).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findings on evaluat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Retrieved August 22, 2002, from http://aspe.hhs.gov/hsp/PositiveYouthDev99/

Cattell, R. B. (1966).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 245-276.

Cavell, T. A. (1990). Social adjustment, social performance, and social skills: A tri-component model of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2), 111-122.

D'Zurilla T. J., & Nezu, A.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156-163.

Demary, M. K., Ruffalo, S. L., Carlson, J., Busse, R. T., Olson, A. E., McManus, S. M., & Leventhal, A. (1995). Social skills assessment: A comparative evaluation of six published rating scales. *School Psychology Review. 24*(4). 648-671.

Derogatis, L. R. (1977). SCL-90(Revised) *Manual 1.*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Greenberg, M., T., Domitrovich, C., & Bumbarger, B., (2001). The prevention of mental disorders in school-aged children: current state of the field. Prevention & Treatment, 4, Article 1. Retrieved June 20, from http://journals.apa.org/

www.dbpia.co.kr

prevention/volume4/pre0040001a.html

Gresham, F. M., & Elliot, S. N. (1990). *Manual for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American Guidance Service.

Kaiser, (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 141-151.

Kaplan, R. M. (2000). Two pathways to prevention. *American Psychologist,* 55(4), 382-396.

Katz, L. G., McClellan, D. E., Fuller, J. O., & Walz, G. R. (1995). *Building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a practical handbook for counselors, psychologist, and teachers.* ERIC Counseling & Student Services Clearinghouse and ERIC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learinghouse.

Lopez, S. J., & McKnight, C. G. (2002). Moving in a positive direction: Toward increasing the utilit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efforts. Prevention & Treatment, 5, Article 17, Retrieved September 4, 2002, from http://journals.apa.org/prevention/volume5/pre0050019c.html

Moon, S-W. (2001, August). *The effects of computer-mediated social competence promotion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109th annual convention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Francisco, USA.

Pierce, E. V. (1984).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revised manual).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9-480.

Sheldon, K., Frederickson, B., Rathunde, K., Csikszentmihalyi, M., & Haidt, J. (2000). Positive psychology manifesto (Rev. ed.). Philadelphia. Retrieved September 22, 2002,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positivepsychology.org/akumalmanifesto.htm

원 고 접 수 일 : 2003. 3.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3. 5. 14
게 재 결 정 일 : 2003. 6. 7

www.dbpia.c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3. Vol. 15, No. 2, 235-258

The Validity and the Ut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Skill Rating System - Secondary Level, Student Form(K-SSRS: Secondary Level, Student Form I)

Sung-Won Moon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validity and the ut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 - Secondary Student Form(SSRS-S Secondary Level; Gresham & Elliot, 1991). The SSRS-S Secondary Level was translated into Korean(K-SSRS: S Secondary Level I) and administered to 402 students at the secondary level. And they also completed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Loneliness Scale, SCL-90-R. Factor analysis of the K-SSRS resulted in four interrelated factors, 1 implying 'empathy', 2 'assertion', 3 'self-control', 4 'cooperation'. K-SSRS: S Secondary Level I correlated positively with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negatively with loneliness, and psychological symptoms. The implications of the cultural difference in social skills and the differential relationships of social skills to adjustment indexes, and the planning of preventive interven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skill, reliability, validity, factor analysis, prevention

www.dbpia.co.kr

부 록 I

K-SSRS: 중고생용I의 원상관 행렬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	1.000																																						
2	.248	1.000																																					
3	.064	.162	1.000																																				
4	.325	.100	000	1.000																																			
5	.205	.27	.169	.194	1.000																																		
6	.125	.202	.076	.053	.170	1.000																																	
7	.011	.089	.004	.073	.024	.057	1.000																																
8	.143	.229	.318	.162	.392	.081	.053	1.000																															
9	.079	.229	.181	.079	.158	.157	.014	.240	1.000																														
10	.130	.134	.084	.043	.092	.190	.122	.007	.161	1.000																													
11	.021	.158	.002	.117	.062	.187	.057	.015	.232	.167	1.000																												
12	.121	.215	.138	.149	.293	.195	.007	.136	.137	.129	.165	1.000																											
13	.134	.144	.035	.016	.094	.137	.059	.084	.249	.104	.171	.115	1.000																										
14	.173	.061	.013	.039	.140	.156	.046	.092	.158	.082	.112	.023	.266	1.000																									
15	.103	.001	.001	.040	.067	.177	.008	.048	.023	.125	.049	.041	.131	.216	1.000																								
16	.266	.217	.083	.122	.116	.240	.070	.108	.163	.150	.041	.133	.183	.118	.162	1.000																							
17	.161	.118	.155	.017	.065	.124	.031	.121	.248	.180	.145	.115	.517	.168	.240	.297	1.000																						
18	.191	.178	.175	.145	.159	.150	.068	.113	.118	.208	.099	.102	.178	.143	.145	.280	.261	1.000																					
19	.002	.073	.092	.122	.020	.183	.163	.015	.108	.169	.098	.096	.131	.133	.117	.106	.166	.084	1.000																				
20	.232	.016	.009	.473	.162	.022	.010	.185	.041	.035	.109	.140	.066	.025	.017	.096	.021	.151	.079	1.000																			
21	.127	.296	.211	.153	.357	.108	.129	.289	.248	.042	.001	.242	.174	.102	.024	.077	.077	.207	.027	.102	1.000																		
22	.088	.053	.043	.076	.080	.288	.083	.016	.154	.210	.183	.068	.132	.120	.144	.073	.179	.182	.128	.036	.082	1.000																	
23	.224	.152	.121	.421	.216	.109	.049	.227	.076	.099	.063	.176	.004	.026	.061	.253	.043	.189	.016	.349	.255	.061	1.000																
24	.246	.537	.210	.080	.245	.244	.079	.257	.258	.164	.155	.233	.186	.107	.077	.268	.160	.135	.081	.072	.252	.110	.270	1.000															
25	.260	.282	.126	.109	.177	.161	.059	.161	.198	.025	.058	.140	.186	.098	.083	.183	.190	.109	.008	.122	.257	.054	.192	.255	1.000														
26	.102	.094	.111	.164	.193	.025	.061	.103	.049	.051	.153	.059	.043	.016	.015	.024	.061	.156	.018	.111	.199	.006	.175	.040	.210	1.000													
27	.076	.112	.070	.123	.087	.347	.121	.062	.092	.125	.139	.205	.189	.097	.029	.166	.145	.125	.086	.094	.153	.338	.077	.195	.117	.088	1.000												
28	.186	.167	.056	.318	.182	.021	.054	.250	.095	.048	.069	.084	.106	.018	.022	.141	.010	.080	.080	.457	.219	.023	.277	.189	.201	.176	.061	1.000											
29	.200	.268	.057	.176	.331	.143	.037	.211	.173	.177	.068	.301	.145	.088	.078	.179	.144	.200	.047	.162	.284	.160	.221	.250	.190	.137	.192	.183	1.000										
30	.336	.325	.034	.141	.264	.204	.035	.171	.105	.159	.086	.236	.128	.085	.156	.320	.149	.207	.007	.123	.212	.137	.218	.328	.243	.136	.164	.152	.272	1.000									
31	.239	.145	.061	.177	.014	.080	.112	.098	.065	.164	.048	.058	.166	.166	.204	.324	.195	.175	.103	.187	.058	.118	.115	.140	.147	.020	.132	.125	.114	.216	1.000								
32	.004	.115	.046	.010	.106	.124	.154	.044	.096	.056	.059	.041	.073	.073	.114	.025	.083	.109	.168	.037	.134	.232	.001	.076	.075	.089	.244	.067	.063	.040	.101	1.000							
33	.119	.099	.046	.277	.133	.057	.131	.099	.004	.068	.004	.030	.132	.031	.040	.139	.101	.170	.119	.191	.116	.003	.201	.082	.160	.298	.096	.158	.167	.110	.117	.087	1.000						
34	.026	.093	.013	.035	.019	.263	.077	.037	.006	.171	.178	.021	.223	.078	.160	.084	.169	.134	.075	.012	.039	.370	.069	.072	.049	.038	.358	.003	.108	.083	.153	.187	.020	1.000					
35	.103	.159	.052	.078	.125	.294	.032	.002	.257	.107	.244	.106	.374	.221	.079	.213	.270	.114	.248	.086	.201	.254	.074	.209	.189	.006	.219	.023	.149	.134	.107	.117	.016	.245	1.000				
36	.117	.230	.122	.026	.154	.213	.115	.104	.198	.166	.133	.102	.276	.159	.109	.131	.178	.193	.250	.004	.216	.208	.121	.128	.204	.167	.244	.044	.089	.140	.130	.232	.070	.174	.345	1.000			
37	.166	.300	.134	.019	.184	.159	.012	.245	.132	.083	.133	.173	.137	.022	.022	.243	.037	.087	.010	.065	.225	.071	.092	.244	.274	.092	.167	.177	.179	.288	.116	.031	.079	.096	.217	.257	1.000		
38	.300	.196	.177	.160	.179	.136	.072	.154	.128	.203	.036	.091	.139	.095	.065	.200	.166	.132	.021	.130	.153	.011	.197	.214	.268	.130	.088	.185	.195	.244	.141	.019	.137	.015	.149	.197	.285	1.000	
39	.222	.311	.228	.209	.296	.126	.101	.385	.112	.109	.037	.217	.115	.049	.019	.181	.060	.238	.049	.211	.317	.047	.262	.313	.199	.168	.219	.293	.284	.310	.143	.111	.231	.019	.147	.259	.316	.310	1.000

www.dbpia.co.kr

부 록 II

회귀 분석 결과(종속 변인 = SPSI)

변인	B	SE B	β	t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공감	.16	.09	.12	1.78	.28	.10
주장성	.09	.07	.08	1.35	.16	.07
협동성	.17	.07	.16	2.54*	.29	.14
자기조절	.23	.06	.21	3.51***	.31	.19

*$p<.05$ ***$p<.001$

부 록 III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인 = LS)

변인	B	SE B	β	t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공감	-.55	.09	-.40	-6.41***	-.49	-.32
주장성	-.19	.06	-.17	-3.01***	-.35	-.15
협동성	-.03	.07	.03	.50	-.18	.03
자기조절	-.11	.06	-.09	-1.65	-.21	-.08

***$p<.001$

부 록 IV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인 = SOM)

변인	B	SE B	β	t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공감	.25	1.84	.01	.14	-.08	.01
주장성	-.53	1.36	-.03	-.39	-.04	-.02
협동성	-1.28	1.37	-.06	-.93	-.13	-.05
자기조절	-4.00	1.34	-.19	-2.98***	-.21	-.17

***$p<.001$

www.dbpia.co.kr

부 록 V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인 = O-C)

변인	B	SE B	β	t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공감	-.28	1.50	-.01	-.19	-.12	-.01
주장성	-1.22	1.12	-.07	-1.09	-.09	-.06
협동성	-1.29	1.12	-.08	-1.15	-.15	-.07
자기조절	-2.73	1.10	-.16	-2.49*	-.20	-.14

*$p<.05$

부 록 VII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인 = DEP)

변인	B	SE B	β	t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공감	-1.40	2.11	-.05	-.67	-.15	-.04
주장성	-1.47	1.56	-.06	-.94	-.10	-.05
협동성	-1.43	1.57	-.06	-.91	-.16	-.05
자기조절	-4.66	1.53	-.19	-3.04***	-.23	-.17

***$p<.001$

부 록 VIII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인 = ANX)

변인	B	SE B	β	t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공감	-1.62	1.59	-.07	-1.02	-.16	-.06
주장성	-.90	1.18	-.05	-.76	-.10	-.04
협동성	-.65	1.19	-.04	-.55	-.13	-.03
자기조절	-2.98	1.16	-.16	-2.59*	-.20	-.15

*$p<.05$

www.dbpia.co.kr

부 록 IX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인 = HOS)

변인	B	SE B	β	t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공감	-2.27	1.01	-.15	-2.24*	-.18	-.12
주장성	1.73	.75	.14	2.30*	.05	.12
협동성	-.13	.76	-.01	-.18	-.18	-.01
자기조절	-3.60	.74	-.30	-4.87***	-.33	-.27

*$p<.05$ ***$p<.001$

부 록 X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인 = PHOB)

변인	B	SE B	β	t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공감	-1.85	.79	-.16	-2.35*	-.24	-.13
주장성	-.94	.59	-.10	-1.61	-.18	-.09
협동성	-.23	.59	-.03	-.39	-.13	-.02
자기조절	-.78	.58	-.09	-1.36	-.15	-.08

*$p<.05$

부 록 XI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인 = PAR)

변인	B	SE B	β	t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공감	-2.95	1.05	-.20	-2.81***	-.24	-.16
주장성	-.43	.78	-.04	-.55	-.13	-.03
협동성	.26	.79	.02	.33	-.11	.02
자기조절	-1.60	.77	-.13	-2.09*	-.18	-.12

*$p<.05$ ***$p<.001$

www.dbpia.co.kr

부 록 XII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인 = PSY)

변인	B	SE B	β	t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공감	-2.05	1.46	-.10	-1.40	-.17	-.08
주장성	.16	1.08	.01	.15	-.05	.01
협동성	-1.14	1.09	-.07	-1.04	-.17	-.06
자기조절	-2.60	1.06	-.15	-2.45*	-.21	-.14

*$p<.05$

부 록 XIII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인 = GSI)

변인	B	SE B	β	t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공감	-.18	.13	-.10	-1.38	-.19	-.08
주장성	-.06	.10	-.04	-.65	-.10	-.04
협동성	-.07	.10	-.05	-.73	-.17	-.04
자기조절	-.30	.10	-.20	-3.16***	-.25	-.18

***$p<.001$

부 록 XIV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인 = PST)

변인	B	SE B	β	t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공감	-3.94	4.68	-.06	-.84	-.15	-.05
주장성	-2.45	3.48	-.05	-.71	-.09	-.04
협동성	-.66	3.50	-.01	-.19	-.12	-.01
자기조절	-11.63	3.42	-.21	-3.41***	-.24	-.19

***$p<.001$

www.dbpia.co.kr

부 록 XV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인 = PSDI)

변인	B	SE B	β	t	종속변인과의 상관	
					zero-order	semipartial
공감	-.14	.11	-.09	-1.22	-.17	-.07
주장성	-.00	.09	-.00	-.05	-.06	-.00
협동성	-.15	.09	-.11	-1.69	-.20	-.10
자기조절	-.17	.08	-.13	-2.03*	-.20	-.12

*p<.05

www.dbpia.co.kr